실업급여 의존 제주도민 1만5000명

지난해 831억 수급… 5년새 2.5배 가량 늘어
청년 이직·비정규직 증가가 큰 이유로 분석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만 800억원이 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민 A(27)씨는 201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초년생 B(28)씨도 지난해 인턴 기간을 거쳐 계약직으로 벤처기업에 입사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회사의 권유에도 지난달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

9일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은 2014년 1만505명·340억원, 2015년 1만708명·388억원, 2016년 1만612명·405억원, 2017년 1만1980명·495억원, 2018년 1만3649명·644억원 그리고 지난해 1만5227명·831억원이다. 5년 새 실업급여 수급 인원은 약 44%, 지급액은 무려 144%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청년 취업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지역 특성상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측은 분석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4.6%로, 전라북도 45%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2018년도 39.1%와 비교해보면 5%p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골프장, 호텔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제주의 특성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타 시도와 비교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등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석기자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1000명당 49.8명 발생

제주지역 추운 날씨와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가 지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49.8명으로 지난해 11월 15일 독감 유행주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5.9명/외래환자 1000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체온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반 감기와는 달리 영유아,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면역이 약한 고위험군에게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겨울 제주의 색다른 멋, 동백정원 9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꽃이 활짝 핀 동백정원에서 제주의 겨울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13개 농가 폐쇄

제주시 "적발된 무허가 축사 132개소는 이행완료"

제주시는 적법화 대상 1·2단계 무허가축사 총 145개소의 농가 중 132개소가 이행을 완료했으며 적법화가 안 된 1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무허가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하고 2019년 9월 27일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철거 등을 하도록 추진해 왔다.

이번에 적법화 불가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13개 농장으로 소 사육이 9개소(전체 무허가 8·부분 무허가 1)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부분 무허가 3개소 및 닭 사육이 부분 무허가 1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을 이동조치하기 위한 일정기간을 부여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시설규모별로 3개의 단계로 나눠지며, 이번 대상은 1·2단계로 돼지·소·젖소·말은 400㎡ 이상, 닭·오리 등은 600㎡ 이상이고, 1·2단계 규모 미만인 경우 3단계에 해당하며 현재 22개소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된다. 고대로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0일 금요일 음 12월 16일 (8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산지와 산간도로에는 결빙 구간이 있어 등반길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4~6℃, 낮 최고기온은 9~13℃에 머물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0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7:39 해짐 17:44	달뜸 17:10 달짐 06:56
물때	만조 10:42 22:21	간조 04:12 17: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6/9℃
모레	흐리고 비	6/8℃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높음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고민관 서장

이천식 과장

김주언 실장

서광열 과장

김진영 함장

제주해경서장 고민관·청 경비안전과장 이천식

해경 총경급 인사 단행

해양경찰청은 오는 13일자로 제주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총경급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신임 제주해양경찰서장에는 고민관(52) 해경청 장비기술국 항공과장이 임명됐다. 고 신임 서장은 제주서 해상안전과 수상레저계장, 서귀포서 정보과장, 제주서 경비구조과장 등을 지냈다.

제주해경청 경비안전과장에는 이천식(55) 보령해양경찰서장이 발령됐다. 이 신임 과장은 인천서 특공대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색구조계장,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 등을 지냈다.

제주해경청 종합상황실장에는 김주언(52) 서해경청 기획운영계장이 승진 임용됐다. 김 신임 실장은 군산서 혁신경무과 경리계장,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계장, 군산서 기획운영과장 등을 거쳤다.

아울러 제주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에는 서광열(59) 서해청 해양오염방제과 서기관이 발탁됐다. 서 신임 과장은 완도서 해양오염방제과장, 서해해경청 방제계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김진영(51) 서귀포서 5002함장은 총경으로 승진했다. 김 함장은 울산서 상황실장, 태안서 경비구난계장, 목포서 1509함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황준현 제주해경서장은 중부해경청 수사정보과장으로, 백학선 제주해경청 경비안전과장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으로, 하창우 제주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상민기자